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신대영 알베르토, 정나미 모니카
 다음주 독서: 송동수 베드로, 손강은 레지나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번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보미 로사
 다음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김태진 하상바로로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43
 교무금: \$ 300

 합 계: \$ 443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부터 미사 전 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복음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여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15 주일]

2011 년 7 월 9 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55,10-11

<제 2 독서> 로마서, 8,18-23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복음, 13, 1-23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오늘의 성가] 시작: 403 봉헌: 219 성체: 501 파견: 400



생명의 말씀

삶은 영원의 씨앗을 잉태한 텃밭

어느 수녀님 말처럼 “접촉은 줄어들고 접촉”만 늘어간다는 시대, 모니터만 바라보느라 인생의 드라마틱한 세계를 잃어버린 시대에는 영적인 세계마저 접촉이 불가능한 시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연을 편리함의 장애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세상은 정신마저 혼미해져 순수한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만 더 키우는 삶이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리움만 키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접촉 없는 접촉만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고, 달력에 새겨진 빨간 날, 휴일만 고대한다면 정작 참된 쉼은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세상에 던져진, 세상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의 씨앗을 잉태한 텃밭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느님 말씀이고 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한 땅에 떨어진 씨는 빼앗기거나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한 채, 숨이 막혀 끝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성소란 어떤 직업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글을 읽고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마태 5,45) 주시는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좋을 씨를 누군가에게는 나쁜 씨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도 그 씨를 받아 가꾸는 이의 정성이 없다면 결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은, 신앙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절대성을 간직하지만 인간의 협조 아래 주어지는 상대성마저 무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해서 신앙은 하느님 사랑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인간 믿음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이란 떨어지는 씨앗을 피할 수 없고 씨앗을 선택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품고 키우는 선택만은 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막을 수 없지만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인지 양산을 들고 나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고, 삶의 냉혹한 비바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게 할지, 아니면 절망과 포기의 장벽이 되게 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조건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한대의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유만큼은 박탈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삶이 좋은 발인지 나쁜 발인지는 그 발에 열린 결실로 드러나는 것임을 안다면 씨를 밟거나 주어진 조건을 밟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이 고통 중에도 인내를 품고 절망 속에도 희망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상의 끝자락에 천상의 첫계단이 숨겨져 있음을 안다면, 이런 세상을 설계해 놓으신 하느님의 뜻이 그래서 신비롭고 신비롭습니다. 오늘도 그 신비가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마구 뛰어 놀게 합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공지사항

- 내일 밀워키 한인 성당 본당 승격 감사 미사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부님이나 사목회장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전 8 시 30 분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 성당 캠프 (8 월 19 일~8 월 21 일)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캠프 관련 안내사항을 성당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용은 1 박당 성인 \$45, 중고생 \$30 입니다. 후보대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목위원에게 주시거나, 구역장님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 성당 지하 공사 관계로 당분간 매달 마지막주 공동체 식사는 없겠습니다. 미사 후 친교는 공사 끝날 때까지는 성당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양심의 존엄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16 항>에서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이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른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의 귀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른다.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 속에 새겨 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며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2 코린토 6:10).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 1:3, 14). 양심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행되는 저 율법을 놀라운 방법으로 알려 준다 (에페소 1:10).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진리를 추구하고 개인 생활과 사회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도덕 문제들을 진리 안에서 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른 양심이 우세하면 할수록 개인이나 집단이 무분별한 방종에서 더욱 멀어지고 객관적 도덕 기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한다. 어쩔 수 없는 무지에서 양심이 잘못을 저지르는 수도 드물지 않지만, 양심이 그 존엄성을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데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죄의 습관으로 양심이 차츰 거의 다 어두워졌을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